Baxter PD

Science + Solutions + Systems + Support

엑스트라닐(아이코덱스트린 7.5%) 복막투석액 사용법

엑스트라닐은 만성신부전 치료를 위한 투석방법 중 자동복막투석이나 지속성외래복막투석 을 하는 경우 하루 8-16시간동안 저류하여 1일 1회 투석 시 사용하는 복막투석액이다. 엑스트라닐은 기존 4.25% 덱스트린 투석액에 비해 장시간 저류 시 PET을 통해 진단되는 복막특성 및 복막투과도에 관계없이 요소, 요산과 같은 노폐물 제거와 잉여수분제거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킨다.

Personalised Dialysis

복막 환경 유지

복막투석 유지를 위해 복막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면역기능유지와 solute 제거, 효과적UF를 위해 필수 조건입니다.

최적의 체액조절

투석을 통해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UF에 있어 최고의 투석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8시간부터 16시간까지도 장시간 저류가 가능하고, high transporter나 복막염 등의 조건에서도 UF가 유지되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장시간 저류

포도당 투석액은 저류 후 8시간이 경과하면 복강 내 투여된 글루코즈의 80%가 흡수되어 UF의 힘은 사라지게 됩니다. 고농도 투석액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질대사에 문제가 생기며 비만과 같은 삶의 질을 저해하는 합병증,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고지혈증,동맥경화증)으로 발전 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저류는 또한 환자의 삶의 패턴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여 환자의 투석 삶의 질을 만족 시킵니다.

Solute 제거 유지

UF 뿐 아니라 solute 제거 유지면에서 포도당 투석액보다 효과적임을 보이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대사 작용 억제

포도당 흡수를 최소화하여 포도당 흡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방대사문제 혹은 비만과 같이 흔히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